

미주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3.6)

1. 신학교 배달/ 신학교 사역이 주의 보호 하심 가운데 631 명의 학생을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의 여러 도시가 자주 폐쇄되었습니다.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중국 성도들의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631명의 학생이 코로나와 정치적 박해 속에서 수업을 이어가며, 힘든 시기임에도 중국 교회를 굳건히 할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18절에 “내가 행하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고 이는 여호와와 이르심이니 내가 행하는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니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자녀를 아끼는 것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인즉 그때에 너희는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신학교 배달을 위해 간구합니다.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중에도 신학교 사역이 주의 보호 가운데 2022년 631명의 학생을 훈련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위축되었던 신학교 수업이 함께 모여 진행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중국 교회를 이끌어 갈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2023년이 되도록 긍휼을 더 하여 주옵소서.

2. 선교사 배달/ 복음이 제한된 12개국 24개 도시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84명의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 현장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곳을 지키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갇혀 억압받는 시간을 겪었지만, 고난을 잘 통과해 연단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제한된 12 개국 24 개 도시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84 명의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셔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 장 22 절에 “그들에게 대답 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자가 온전히 걸으며 문둥병 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난 한 해도 선교지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에도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선교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헤쳐 나가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으며, 사명을 완수해 가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 북한 주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땅이 곡식을 내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 양수기를 못 돌려서 모판에 물을 못 댁니다. 몇 대 없는 트랙터는 기름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요. 아무리 자급자족 경제라도 없는 건 사 와야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업 문제를 놓고 당에서 회의를 한다는데, 다들 눈치를 보느라 수입하자는 말을 못 꺼낼 겁니다. 그러니 수십 번을 회의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본회 심바울 목사가 북한이 농사 문제로 전원회의를 연 것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땅이 곡식을 내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온 땅 표면의 씨 맺는 모든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니 그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 장 29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먹을 것을 자라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농업 문제가 전원회의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함으로 황폐해진 북녘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사 그 땅 거민을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곡식과 산물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4.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착취에서 놓임받고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기도합니다!

중국 단둥에만 8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둥시 방역 당국이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핵산(PCR)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린성 훈춘과 옌지 등 중국 전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수를 합하면 최소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은 2019년 해외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를 약 10만 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착취에서 놓임받고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너희가 정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미가 3장 1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에 말씀하신 하나님, 노동 착취로 인해 신음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서조차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정권의 통치자금을 위해 억압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중국 등 그들을 고용한 나라들이 그 실상을 외면하지 않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수고한 소산을 먹을뿐더러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은택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5. 북한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6천 300만 달러(약 785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지난 13~14일 암호화폐 이더리움 4만 1천 개를 암호화폐 거래소 3곳으로 옮긴 후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현금화에 성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기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네가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신명기 6장 18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주신 하나님,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검은 돈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고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을

멈춰 주옵소서. 사이버 범죄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